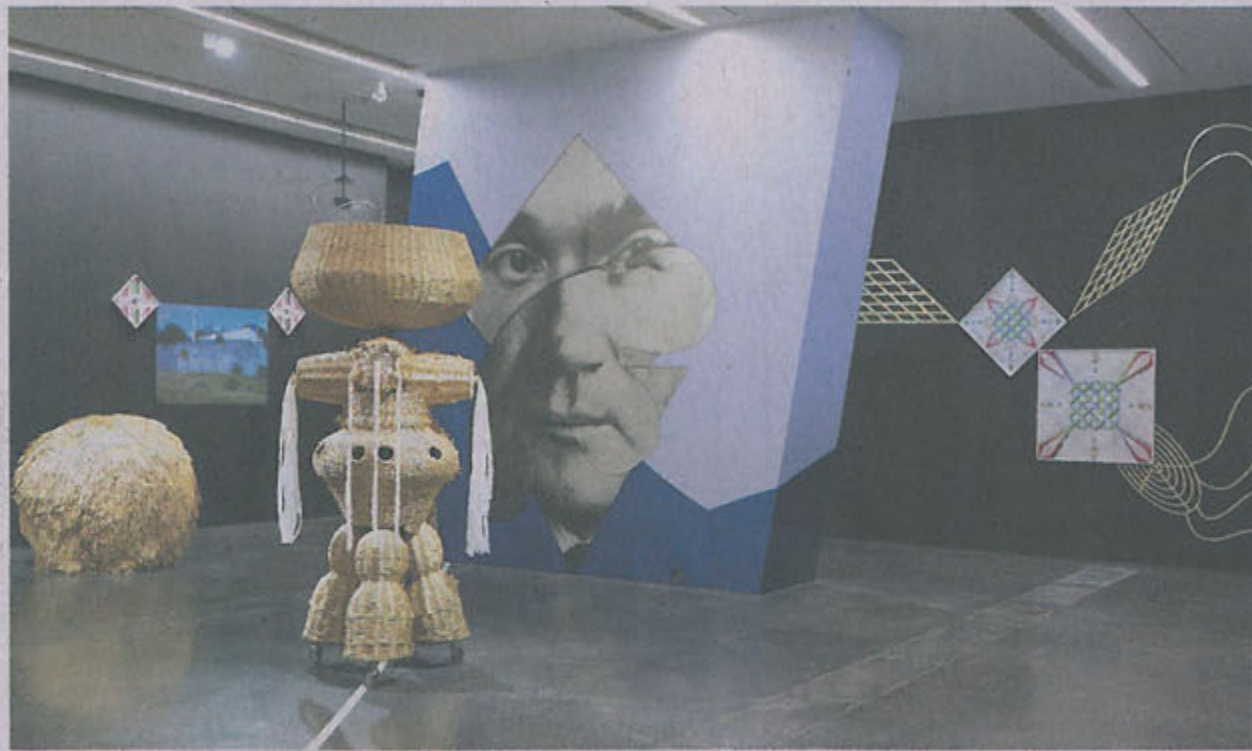


中 현대미술의 성지 '울렌스'서 개인전 연 양혜규

베이징 심장부에 K아트를 심다

중국 베이징 동북부 차오양구 다산츠 지역에 있는 798예술지구. 미국 뉴욕과 함께 전 세계 미술계를 뒤흔드는 '미술 심장부'다. 798거리에서 조금 걷다 보면 '울렌스현대미술관(UCCA·Ullens Center for Contemporary Art)' 간판이 보인다. 벨기에 왕족이자 미술계 큰손인 울렌스 부부가 2007년 지은 기관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중국 최고 현대미술관이다. 류젠화 류샤오둥 장환이 전시를 했으며 내년엔 쟁판즈 개인전이 예정돼 있다.



이곳 입구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목재 선반 위에 초코파이 수백 상자를 탐처럼 쌓은 조형물 2개가 눈에 들어온다. 한국에서 팔리는 오리온 초코파이 '정(情)'과 중국에서도 역시 익숙한 초코파이가 각각 500kg씩 차곡차곡 쌓여 있다. 세계무대에서 종횡무진하는 양혜규(44) 신작 '유태(有德)한 먹을거리 정(情) 그리고 인(仁)'이다. 미술관에서 만난 작가는 "바로 택배가 도착한 것 혹은 출발할 것처럼 포장도 뜯지 않았다. 조형적으로 아름다운 것은 아니지만 양국에서 '푸근한 과자'로 통용되는 데다 중국에선 '정'이 아니라 '인'으로 이름 붙여진 것이 흥미롭

다"고 말했다. 초코파이는 중국에서 처음 개인전을 여는 작가 스스로에 대한 은유이자 상징이다.

올 상반기 삼성미술관 리움에서 개인전을 연 양혜규가 지난달 29일 울렌스현대미술관에서 '우기청호(雨奇晴好)' 전을 개막했다. 서도호가 그룹전에 참여한 적은 있지만 한국 작가 개인전은 양혜규가 처음이다. "나는 여기서 제로다"라는 심정으로 왔는데, 우린 널 잘 알고 있다는 관점으로 대해 깜짝 놀랐어요. 중국 미술계가 가지고 있는 정보력이 상상 외로 놀라워요."

전시명 우기청호는 중국 시인 소동파 소식(蘇軾·1036~1101)이 귀



양 갔을 때 지은 시다. 비 올 때 경치가 기이하여 운치가 있으나, 갠 후 경치도 좋다는 뜻이다. "귀양 간 괴로운 상태에서 풍경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배신감과 화가나 미칠 지경이었겠지만 시인은 이를 송고한 정신으로 승화시켰어요. 이런 멘탈과 공감각적인 표현이 좋았습니다."

“예술가는 자기 욕망에 귀 기울이고 솔직해야”

시대 풍자 담은 초코파이탑 등 설치작품 40여점

한국작가 최초 “중국에 내딛는 의미있는 첫걸음”

전시장에는 리움에서도 선보였던 '솔 르윗 뒤집기' 연작이 부유한다. 양혜규 하면 블라인드라는 등식이 성립됐을 정도인데 이 작품은 블라인드 표현과 재료적인 한계를 확장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의류 행거에 전구와 전선, 잡동사니들을 주렁주렁 걸어놓은 광원 조각 3점 '토탈

로봇', 싱가포르산 향신료를 바탕으로 한 판화작업과 도료의 일종인 래커를 활용한 회화, 인조 짚으로 만든 '중간유형' 등 40여 점이 펼쳐진다.

"2~3년 전 미술관에서 전시 제의를 받았을 때 제가 주도권을 가지고 제대로 된 전시를 하고 싶었어요. 그때 미술관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하더군요. 전시도 전시지만 중국어로 된 자료집을 내는 것도 중국에서 의미 있는 한 걸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는 '토탈'이라는 제목으로 된 여러 작품을 통해 원시부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하이브리드 개념을 선보인다. 올해 리움과 UCCA 전시라는 굵직한 일정을 소화한 그다. 그의 달력엔 2018년 계획까지 일정이 빼곡하다. "저 스스로도 '포스트 리움' '포스트 UCCA'를 생각해요. 스스로 '내 진심은 뭐니. 뭘 하고 싶니. 뭐가 간절하니'라고 묻곤 하죠. 예술가들은 그때 그때 자기 욕망에 충실해야 합니다. 내면의 소리에 귀를 쫓

곳 세우고 들어야 해요. 영감은 샘솟듯이 막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서울대 조소과를 나와 1994년부터 독일로 유학을 떠난 뒤 노마드처럼 전 세계를 떠도는 그다. 그는 능력보다 진심과 태도를 중시한다. "예술가는 동시대 사람들과 같이 굶주리고 행복해하면서 경험을 해야죠. 우리는 현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경험이 동반되지 않으면 공감대 형성이 안 돼요. 저는 철면피적인 데가 있어 현재에 만족할 줄 몰라요. 앞으로 코뿔소처럼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전진하고 싶습니다." 전시는 내년 1월 3일까지.

베이징/이향휘 기자